

# 한·일 의례성 인사말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金 普 仁\*\*

---

## 目 次

---

- |                       |                    |
|-----------------------|--------------------|
| I. 첫머리에               | 1.3. 기다림의 장면       |
| II. 의례성 인사말의 비교·분석    | 2.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 |
| 1.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       | 2.1. 심정적 표현        |
| 1.1. 음식과 관련된 장면       | 2.2. 동조적 표현        |
| 1.2. 마주침·헤어짐의 장면      | 3. 양방향성 의례성 인사말    |
| 1.2.1. 오랜만에 만났을 때     | III. 마치며           |
| 1.2.2. 우연히 마주쳤을 때     |                    |
| 1.2.3. 헤어질 때          |                    |
| 1.2.4. 외출 할 때와 귀가 할 때 |                    |
- 
- 

## I. 첫머리에

인사는 사회적 공간에서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서로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표현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만남의 시작과 끝에는 인사가 있으며, 인사는 인간관계의 출발이고 사회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윤회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인사는 언어의 친교적 기능으로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화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

\* 본 논문은 2006년 2단계 BK21사업 인문사회분야 핵심사업의 하나인 <네오제패네스크 戰略 分析 과 日本文化 專門家育成>팀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음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일본어학)

구성요소로서 대화를 시작하거나 또는 끝마무리에서도 그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언어문화가 비슷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더라도, 양국의 인사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드라마를 분석 자료로 하여, 여러 인사 형태 중에서 특히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례성 인사말」을 세부적으로 연구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로 양국의 대조 연구를 통하여 특징과 성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의례적 언행은 최소한의 의식성과 예의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욕구를 배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두산세계대백과사전』(2001)에서 「형식을 갖춘 예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사란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부를 묻거나 안녕을 비는 말을 하는 것, 감사하거나 칭찬하거나 또는 기타 격식을 차려야 할 일 등에 예의로서 어떤 말을 하거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히 예의적인 언행을 갖춘 의례적인 인사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일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며 드라마는 최근 2000년부터 방영된 것으로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3편, 한국에서 방영된 일본드라마 5편이다. 양국의 드라마가 방송된 편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가 당 각 52회씩으로 총 104편이다. 드라마가 주된 조사 자료가 된 이유는 양국인의 언어생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양국의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가장 단시간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영상매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TV 드라마는 한일 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된 한일 양국의 의례성 인사말의 대화문은 드라마에서 채록하여 필자가 직접 문자화 한 것이며, 인사말은 상대와의 첫 만남의 인사말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의례성 인사말 표현이 반복하여 나오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대상 드라마의 구성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1> 한·일 분석 대상 드라마 구성표

한 국			일 본		
드라마명	편수	방영시간 (분/회당)	드라마명	편수	방영시간 (분/회당)
겨울연가 (2002)	20	70/1	やまとなでしこ (요조숙녀, 2001)	11	45/1
옥탑방 고양이(2003)	16	60/1	恋いがしたい×3 (사랑이 하고 싶어×3, 2001)	11	45/1
풀 하우스 (2004)	16	60/1	GOOD LUCK! (굿 럭!, 2003)	10	45/1
-	-	-	元カレ (옛 남자친구, 2003)	10	50/1

-	-	-	野ブタをプロデュース (노부타를 프로듀스, 2006)	10	45/1
계	52	55시간 20분	계	52	39시간 50분

의례성 인사말의 분류는 양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심리학 연구자인 최상진·유승엽(1994)<sup>1)</sup>의 의례성 유형의 분석관점을 원용하여 각 인사말에 따라 분류한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였을 때 의례성 인사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의례성 인사말을 하위분류를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특별한 의도성을 갖지 않고 하는 인사말의 형태인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과, 상대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건네는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양자가 의례적인 언행을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성 의례성 인사말」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인사말 형태를 예문으로 들며, 양국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의례성 인사말의 표현과 그 특징, 그리고 전체 빈도수와 남녀별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인사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례성 인사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 기준 방법으로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진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의례성 인사말이 오가는지 양국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서 양국의 언어생활 문화를 바르고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한일 간의 이해 및 거리를 좁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II. 의례성 인사말의 비교·분석

### 1.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이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특별한 생각이나 의도성을 갖지 않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상대와의 사적인 관계를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나 봐?” 등의 표현은 상대가 어디에 가는지 궁금해서 묻는대기보다 상대를 길에서 만났을 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스크립트 언행이며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질문은 다만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1) 최상진·유승엽(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 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369-385

을 표명하는 기능으로 족하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데 그 본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곧 의례적 언행 속에는 예의성이 담겨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 양국의 드라마에서 주로 표현되는 의례성 인사말의 표현을 음식과 관련된 장면, 마주침·헤어짐의 장면, 그리고 기다림의 장면과 같은 3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1. 음식과 관련된 장면

한국에서는 지인을 식사 시간대에 만났을 때, “밥 먹었어(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정말 밥을 먹었는지 궁금할 경우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던질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혹자는 애정 표현 대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인사는 대부분이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는 상대방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의상 “차 한 잔 할래(요)?”라고 권유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인사말에는 아침·저녁 인사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할 때 처한 상황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진다<sup>2)</sup>.

일본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인사말은 거의 주고 받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인사 표현으로 아침에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점심에는 “こんにちは”, 그리고 저녁이나 밤에는 “こんばんは”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나온 식사와 관련된 인사말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表2> 음식과 관련된 장면의 인사말 비교

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① 밥 먹었어(요)?	17 (34.0)	① 何か飲む?	7 (44.2)
② 저녁은 먹었어?	8 (16.2)	② お腹すいてるんでしょう。食べたら	1 (6.2)
③ 뭐 마실래?	3 (6.0)	③ 朝ご飯食べる時間なかったんですか?	1 (6.2)
④ 많이 먹어	2 (4.0)	④ 今日のおかずは何?	1 (6.2)
⑤ 뭐 먹을래?	2 (4.0)	⑤ お茶でもいれようか?	1 (6.2)
⑥ 점심 먹었니?	1 (2.0)	⑥ ご飯、ちゃんと食べます?	1 (6.2)
⑦ 이거 마시고 해	1 (2.0)	⑦ いっしょに食べない?	1 (6.2)
⑧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 드실래요?	1 (2.0)	⑧ 夕御飯は?	1 (6.2)
⑨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1 (2.0)	⑨ お昼よ?	1 (6.2)
⑩ 뭐 먹을 것 좀 갖다 줄까	1 (2.0)	⑩ 夕ご飯何も食べないの?	1 (6.2)
⑪ 이것 좀 먹을래?	1 (2.0)		

2) 황병순(1999) 「국어인사말 연구」 『배달말』 제25권('99.12) p.16

⑫ 저녁에 뭐 먹을래?	1 (2.0)		
⑬ 진지는데요?	1 (2.0)		
⑭ 식사 하셔야죠	1 (2.0)		
⑮ 밥 먹으러 갈 거면 같이 가자	1 (2.0)		
⑯ 저녁 같이 할래요?	1 (2.0)		
⑰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가시죠	1 (2.0)		
⑱ 차 마실래?	1 (2.0)		
⑲ 당신 안 먹어요?	1 (2.0)		
⑳ 밥 안 먹어요?	1 (2.0)		
㉑ 밥은 챙겨먹고 있지?	1 (2.0)		
㉒ 밥은 먹고 나가야지	1 (2.0)		
㉓ 차는 뭐 드시겠어요?	1 (2.0)		
계	50 (100.0)	계	16 (100.0)

한국은 「밥」이나 「식사」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식사 여부에 관련된 인사말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는 茶를 권유하는 인사말도 쓰고 있었다.

일본은 식사의 유무에 관련된 인사말은 드물게 있었는데, “夕ご飯は?(저녁은?)”, “お昼は?(점심은?)”, “ご飯、ちゃんと食べます?(밥 잘 먹고 있어요?)”의 인사말이 있었다. 식사에 관련된 인사보다는 茶를 권유하는 표현이 일본인다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처럼 “밥 먹었나?”는 인사보다는 “차 마실래요?”의 인사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국 모두 주로 방문객에게 예의상 물어보는 질문 형태의 인사말 표현으로 茶에 대하여 권유하는 표현이 동일하였는데, 상대가 당연히 茶를 마실 것이라 판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마주침·헤어짐의 장면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고 헤어지는 상황은 수없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더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4가지 상황인 ① 오랜만에 만났을 때 ② 우연히 마주쳤을 때 ③ 헤어질 때 ④ 외출할 때와 귀가할 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2.1.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장면의 인사는 자주 만나지 못한 상대의 근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주로 「오랜만」과 「건강」의 어휘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안부 인사말을 하는 것은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진 양국의 의례성 인사말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t;表3&gt;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인사말 비교

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① 잘 지내?	14 (38.8)	① 元気?	5 (45.5)
② 오랜만이야	12 (33.3)	② ひさしぶり	3 (27.2)
③ 넌 어떻게 지내?	3 (8.3)	③ しばらく	1 (9.1)
④ 잘 있었어?	2 (5.6)	④ 生きてた?	1 (9.1)
⑤ 그간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1 (2.8)	⑤ 最近の調子は?	1 (9.1)
⑥ 얼굴 좋아지셨네요	1 (2.8)		
⑦ 건강하시죠?	1 (2.8)		
⑧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1 (2.8)		
⑨ 그동안 잘 있었어?	1 (2.8)		
계	36(100.0)	계	11(100.0)

한국은 주로 상대의 안부를 묻는 형태 등,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딱딱하게 정하여진 표현을 쓰는 대신에 잘 지냈느냐는 인사말이 다양한 인사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처럼 다양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오랜만의 만남에서 반가움과 놀라움을 표하는 언행의 종류가 한정되어 일본의 정형적인 인사말로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 1.2.2.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양국 모두 의문형태의 인사말로 갑작스레 마주친 상황에서는 먼저 행위에 관하여 묻는 표현과 현재 상황이나 행선지에 관한 인사말의 형태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표하고 있다.

양국 모두 어느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만남에 대하여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도 있는 경우이지만, 「의외」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언행적 스크립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만난 장소에 왜 있는지 궁금해 한다기보다는 마주쳤을 때의 놀라움이 「어찌 된」의 뜻을 지니고 있는 관용사적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다.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진 마주친 장면에서의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4>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인사말 비교

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① 웬일이야?	23 (36.0)	① なにしているの?	19 (35.1)
② 어쩐 일이야?	4 (6.1)	② どうしたの?	12 (22.1)
③ 언제 왔어?	3 (4.7)	③ なにしにきたの?	7 (13.0)
④ 오셨어요?	3 (4.7)	④ なにかあった?	6 (11.0)
⑤ 어디가?	2 (2.9)	⑤ どうだった?	2 (3.6)
⑥ 생각보다 일찍 왔네	2 (2.9)	⑥ なにかようですか?	1 (1.9)
⑦ 아직 안 갔었니?	2 (2.9)	⑦ 何で、いきなり	1 (1.9)
⑧ 왔어?	2 (2.9)	⑧ 何を?	1 (1.9)
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2 (2.9)	⑨ 何かいいことあった?	1 (1.9)
⑩ 일찍 오셨네요	1 (1.7)	⑩ 早川さんいたの? 偶然だな	1 (1.9)
⑪ 차나 한 잔 하려고 들렀어요	1 (1.7)	⑪ ちとせさんもきてたよね	1 (1.9)
⑫ 어이! 승룡!	1 (1.7)	⑫ まだいたの?	1 (1.9)
⑬ 어이! 이사님!	1 (1.7)	⑬ お、ちょうどよかった	1 (1.9)
⑭ 아이구, 반갑습니다	1 (1.7)		
⑮ 잘 갔다왔어?	1 (1.7)		
⑯ 짝꿍은 어디가고 차장님 혼자 다니세요?	1 (1.7)		
⑰ 왔으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1 (1.7)		
⑱ 이게 얼마만이야	1 (1.7)		
⑲ 아아, 안녕하세요?	1 (1.7)		
⑳ 인사하려고 들렀어요	1 (1.7)		
㉑ 너 여기 무슨일이야?	1 (1.7)		
㉒ 오늘 무슨 날이에요?	1 (1.7)		
㉓ 집에 있었네	1 (1.7)		
㉔ 여기까지 오셨는데 들어가시죠	1 (1.7)		
㉕ 어서와요	1 (1.7)		
㉖ 인사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 (1.7)		
㉗ 저번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 (1.7)		
㉘ 나오셨어요?	1 (1.7)		
㉙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1 (1.7)		
계	63(100.0)	계	54(100.0)

한국의 경우는 “웬일이야?”가 의례적인 인사말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었으며, “어쩐 일이야?”, “언제 왔어?”와 같이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맞이하는 의문형태의 나 “어쩐 일이야?”, “어디가?”, “어디 다녀오나 보죠?” 등의 표현으로 행선지에 대한 의문형태가 있다.

일본은 “なにしているの?(여기서 뭐하고 있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どうした

의?(어떻게 됐어?)”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 1.2.3. 헤어질 때

한일 양국 모두 표현되는 인사말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전제하에 두고 가볍게 건네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다른 인사말보다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인사말을 건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다음<sup>3)</sup>」의 의미를 담은 애매한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그 다음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얼마 후의 기약 없는 약속을 나타낸다. 다음번의 언제라고 정확하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을 남김으로써 상대방에게 작은 기대를 하게 만들며,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건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받는 상대 또한 의례적으로 건네는 인사말로 받아들인다. 전화를 한다면 언제 한다는 것인지, 만나자면 언제 만나자는 것인지, 정확한 약속을 하지 않는 표현이 언제부터인가 헤어짐의 인사에서 의례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소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별로 내키지 않는 상대와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로 얼버무리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찾아온 방문객과의 대답이 잠시도 싫으면서 더 이야기하고 가라느니 또는 다음에 자기 집을 찾아달라느니 하는 것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로서 헤어진 이후에 다시 만나고 싶음을 서술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전화할게”, “연락할게”라는 말은 「다음」이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효과를 남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인사말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은 상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내용, 즉 인사말의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진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3) 남광우 외 2인(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338

① 일정한 차례나 번(番)에서의 바로 뒤. 예) 다음 주

② 일정한 일이 끝난 뒤 예) 청소를 마친 다음 식사 하자.

③ 일정한 시일이나 시간이 지난 뒤. 예)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 하세.

<表5> 헤어질 때의 인사말 비교

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① 다음/나중에 보자	15 (20.7)	① じゃ、また	29 (23.5)
② 전화/연락할게	13 (18.0)	② じゃ、あつて	15 (12.1)
③ 먼저 가볼게요	6 (8.2)	③ バイバイスル	8 (6.4)
④ 나 갈게	4 (5.5)	③ 楽しかった	7 (5.6)
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3 (4.2)	④ ごちそうさまでした	5 (4.0)
⑥ 내일봐요		④ 電話する	4 (3.2)
⑦ 잘가	3 (4.2)	⑥ 元気でね	3 (2.5)
⑧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2 (2.8)	⑦ 今度、いつ会えるかな	3 (2.5)
⑨ 지금가요?	2 (2.8)	⑧ もう帰られるんですか	3 (2.5)
⑩ 그럼 들어가 봐	2 (2.8)	⑨ いろいろありがとう	3 (2.5)
⑪ 다음에 또 올게요	2 (2.8)	⑩ お世話になりました	3 (2.5)
⑫ 그럼 안녕히 가세요	2 (2.8)	⑪ 気をつけてね	3 (2.5)
⑬ 멀리 안 나갈게요	2 (2.8)	⑫ じゃね	3 (2.5)
⑭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	2 (2.8)	⑬ 帰るね	3 (2.5)
⑮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2 (2.8)	⑭ ○○のことよろしくね	3 (2.5)
⑯ 그럼, 전 이만	1 (1.4)	⑮ 先いきます	3 (2.5)
⑰ 먼저 들어가세요	1 (1.4)	⑯ すぐもどるから	3 (2.5)
⑱ 이따 봐요	1 (1.4)	⑰ しつれいします	2 (1.6)
⑲ 자주 놀러오세요	1 (1.4)	⑱ また、かけてください	2 (1.6)
⑳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1 (1.4)	⑲ おつかれさまでした	2 (1.6)
㉑ 실례 많았습니다	1 (1.4)	㉑ それじゃ	2 (1.6)
㉒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1 (1.4)	㉑ 連絡します	1 (0.8)
㉓ 그만 가	1 (1.4)	㉒ そろそろいきます	1 (0.8)
㉔ 다음에 서울 오면 연락해요	1 (1.4)	㉓ また来てください	1 (0.8)
㉕ 그럼 몸조리 잘 하세요	1 (1.4)	㉔ もうすぐかえるから	1 (0.8)
		㉕ おじゃましました	1 (0.8)
		㉖ じゃましたみたいで	1 (0.8)
		㉗ 先いけど	1 (0.8)
		㉘ もう一回だけ会ってもらいませんか	1 (0.8)
		㉙ おやすみなさい	1 (0.8)
		㉚ こんどおごるよね	1 (0.8)
		㉛ こんどつれてあげようね	1 (0.8)
		㉜ そろそろ時間です	1 (0.8)
계	72 (100.0)	계	123(100.0)

한국에서는 전화 통화가 끝난 경우 손윗사람에게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들어가세요”라는 말의 반대는 “나오세요”가 된다. 따라서 집에서 나오셨으니까 집으로 되돌아가시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할 때에 처음 쓰는 말이 “여보세요”이니까, 이는 곧 「불러낸다」는 뜻이고, 용무가 있어서 불러내어 용무를 마쳤으므로 당연히 “들어가세요”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만,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먼저 건 쪽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의상 상대방에게 먼저 전화를 끊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 “バイバイクル”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생 사이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한 명이 “バイクル”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bicycle」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종의 말장난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인사할 때의 손 모양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의 동작을 한다.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생활패턴도 엿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본인은 일상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다. 즉, 영어의 발음 그대로를 인사의 형태로 사용하여, 「バイバイクル = by bicycle」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 잘 가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색다른 느낌으로 헤어짐의 인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 1.2.4. 외출할 때와 귀가할 때

한국과 일본의 경우 둘 다 어순상으로 볼 때 “갔다 온다 - 行ってくる”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고, 일본은 확실하게 정해진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대꾸하는 말까지 마치 공식처럼 정형화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진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6> 외출할 때와 귀가할 때의 인사말 비교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① 이제 오니?	20 (27.4)	① ただいま	21 (42)
② 언제 왔니?	9 (12.3)	② おかえりなさい	12 (24)
③ 왔어?	9 (12.3)	③ 行ってらっしゃい	5 (10)
④ 오셨어요?	4 (5.4)	④ 行ってきます	5 (10)
⑤ 지금 퇴근하니?	3 (4.1)	⑤ 行ってまいります	1 (2)
⑥ 어디 갔다 오는 거니?	3 (4.1)	⑥ 今日、早いじゃん	1 (2)
⑦ 나갔다올게	3 (4.1)	⑦ おそかったね	1 (2)
⑧ 지금 나가려구?	2 (2.7)	⑧ いつ戻したの?	1 (2)
⑨ 일찍 오셨네요	2 (2.7)	⑨ 戻りました	1 (2)
⑩ 갔다 왔어?	2 (2.7)	⑩ お、帰ってか	1 (2)
⑪ 갔다 왔냐?	2 (2.7)	⑪ 早いですね	1 (2)
⑫ 갔다 올게	2 (2.7)		
⑬ 지금 가니?	1 (1.4)		
⑭ 유진이니?	1 (1.4)		

⑮ 어디가?	1 (1.4)		
⑯ 지금 오는 거니?	1 (1.4)		
⑰ 너 들어왔구나	1 (1.4)		
⑱ 나왔다	1 (1.4)		
⑲ 퇴근 안 해요?	1 (1.4)		
⑳ 집에 있었네	1 (1.4)		
㉑ 많이 늦어?	1 (1.4)		
㉒ 어디 나가는 중인가신가 봐요?	1 (1.4)		
㉓ 지금 와요?	1 (1.4)		
㉔ 지금 나가는 거예요?	1 (1.4)		
계	73 (100.0)	계	50 (100.0)

한국에서는 외출할 때의 인사말보다는 귀가할 때의 인사말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는 사람을 반기는 말로 “이제 오니?”가 가장 많았다.

일본도 역시 외출할 때보다 귀가할 때의 상황이 더 많았는데, “ただいま - おかえりなさい”가 한 쌍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귀가할 때의 습관적인 인사말로 “ただいま”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드라마의 구성상 주인공들의 만남에서부터 화제가 진행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므로, 주로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외출할 때와 귀가할 때의 인사말 표현 빈도수가 고르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치 않은 점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 1.3. 기다림의 장면

기다림의 장면은 약속된 만남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의례적 표현, 혹은 가게의 점원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에게 하는 인사말을 중심으로 하였다. 상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마치 이를 다시 확인이나 시켜주는 듯이 기다렸냐는 식의 말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자신보다 먼저 와 있는 상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완곡적인 표현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드라마를 통하여 얻어진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7> 기다림의 장면에서의 인사말 비교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회수(%)

회수(%)

① 많이 기다렸어?	15 (60.0)	① ごめん、遅くなって(遅くなって、ごめん)	24 (38.7)
② 늦었네	3 (10.4)	②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18 (29.1)
③ 늦어서 죄송합니다	2 (7.0)	③ おまたせ	7 (11.2)
④ 안 늦었지?	1 (3.4)	④ 来てくれたね	5 (8.2)
⑤ 생각보다 일찍 왔네	1 (3.4)	⑤ おそいわ	3 (4.8)
⑥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1 (3.4)	⑥ 待ってたんです	1 (1.6)
⑦ 미안해요, 기다리게 해서	1 (3.4)	⑦ ごめん、ごめんな	1 (1.6)
⑧ 오래 기다렸어?	1 (3.4)	⑧ ごめん、またせて	1 (1.6)
⑨ 내가 좀 늦었지	1 (3.4)	⑨ おそくなりました	1 (1.6)
⑩ 늦은 거 아닌가	1 (3.4)	⑩ 待ちました	1 (1.6)
⑪ 너 벌써 와 있었어?	1 (3.4)		
⑫ 왔어요?	1 (3.4)		
계	29 (100.0)	계	62 (100.0)

상대와의 만남에서 늦은 경우, 기다려 준 상대에게 하는 한국과 일본의 의례적 인사말에서 미묘하면서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례적인 언행을 보면, 한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일본은 상대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표현인 “많이 기다렸어?”는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의 기다림에 대한 언행이라 볼 수 있고, 일본의 표현인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와 “ごめんね、おそくなっちゃって”는 상대를 기준으로 한 상대방의 기다림에 대한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기다려준 상대에 대해 배려적인 의미에서 쓰인 것이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 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양국의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의 방송을 예로 들 수 있다. 다가오고 있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電車がまいります。内側におはいりください。(전차가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한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일본인들의 입장 바꾸기식 사고방식은 상대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内側にお入りください(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어의 어법은 항상 상대를 조심하는 「かしこ(畏)」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기다림의 표현은 자기중심적인 한국인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일본인의 습관성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4) 김용운(2001) 『문화로 배우는 이야기 日本語』 디자인 하우스 p.347

## 2.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

본절에서는 의례성 인사말의 두 번째 형태인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욕구, 기대를 포함하는 심정과 상대와의 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사회 규범성에 부응하는 의례적 언행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 상대가 듣기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것<sup>5)</sup>이나, 또는 상대의 입장과 심정을 배려하는 것<sup>6)</sup>,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본인의 마음과는 다른 또는 본인의 마음에 없는 「상대체면치레말」을 상대에게 해 주는 것 등이 이 형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의례성과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상대에 대한 배려성이 깊이 관여되지 않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배려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말을 심정적 표현과 동조적 표현의 2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2.1. 심정적 표현

심정은 마음을 뜻하는 心과 감정을 의미하는 情의 복합어로서 다음 2가지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이며, 둘째는 감정이 개입된 마음 또는 마음이 개입된 감정이다<sup>7)</sup>.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즐거운 일, 좋은 일을 하였을 때, 또는 상대방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을 겪은 경우에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말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아껴주는 마음은 곧 상대를 위해 긍정적 마음을 써주는 마음이다. 단순히 상대를 위해 긍정적 마음을 써주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정을 사전에 배려하여 의도적으로 상대의 부정적 심정을 유발하는 언행을 삼가거나 긍정적 심정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3가지 기능으로 걱정, 배려, 아침의 성격을 띠고 긍정적으로 상대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표현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5) 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등

6) 예)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선생님이 '이해되니?'라는 식으로 이해 여부를 물을 때 학생들은 '예'라고 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최상진(1994) 「韓國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 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313-237

2.1.1. 걱정

주위의 사람들과 주고받는 “괜찮아”라는 말에는 각자의 처지에서 제각각 가지는 그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타인이 실수를 하거나 자신에게 번거롭거나 손해를 봤을 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괜찮을 거야”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병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확실 같은 것은 없으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상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언행의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예의상 쓰이는 말이라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심정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상대가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다. 상대의 처지나 상황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인사말이며, “괜찮아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상태를 위로하여 줄 수 있다. 괜찮으냐는 말에 다시 괜찮다는 말로 답하기도 하는데 별로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걱정해준 상대에 대하여 배려적인 답례적 언행이다.

드라마를 통하여 얻어진 의례성 인사말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8> 걱정의 의미를 담은 의례성 인사말 비교

인사말(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괜찮아(34) 너무 걱정하지마세요(1)/ 곧 깨어나겠지(1)/ 고생 많았죠?(1)/ 마음 고생 심했지?(1)/ 피곤하시죠?(1)/ 힘들죠?(1)/ 무슨 일야?(1)/ 추우니깐 옷 튼튼히 입고.(1) 일 때문에 바빠다더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구나(1)/ 약이나 꼭 발라라(1)/ 혼자 있 어도 되겠어?(1)/ 옷 좀 두툼하게 입고 다녀라 추워보여(1)/ 요즘 뭐 걱정거리 있어요?(1)/ 집에 무슨 일 있어요?(1)/ 무슨 고민 있는 거 같은데, 집에 무슨 일 있어요?(1)/ 와인 드셨 는데, 운전해도 되요?(1)/ 할아버지 다치셨어 요?(1)/ 어디 많이 안 좋아요?(1)/ 너 할아버 지하구 잘 하구 온거야?(1)/ 몸 조심해라(1)/ 일두 좋지만 오빠 몸 생각해가면서 해(1)/ 너 얼굴이 왜 그러냐?(1)/ 무슨 고민있어?(1)/ 너 목소리가 왜 그래?(1)/ 걱정마(1)/ 얼굴빛이 왜 그래?(1)/ 많이 아파?(1)/ 아파?(1)/ 어디 불 편하셨어요?(1)/ 많이 편찮으신건 아니지?(1)/ 많이 다치신건 아니죠?(1)/ 편찮으시다면서 요?(1)/ 아직도 많이 아파?(1)/ 무슨 일 있었어	69	大丈夫?(34)/ 桜子さんのおかげはどうですか？(1)/ 何かあった？(1)/ これからどうするつもりですか((6)/ ぐあい悪いんだって？(1)/ 風邪ひくなよ(1)/ ご気分のわるいですか?(1)/ どうだったかしら(1)/ ひろえさん、来ないけど、何か連絡あ った？(1)/ ちゃんと仲直りした?(1)/ けんかでもしたの？(1)/ むこうに行ってもむりしちゃうだめだよ(1)/ どうかした?(1)	51

요?(1)/ 너 정말 그렇게 일하다가 진짜 코피 나는거 아냐?(1)		
---------------------------------------	--	--

### 2.1.2. 배려

상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로·응원하며 용기를 건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위로의 말을 건네준 상대방에게 답례적인 언행을 하는 표현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사말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표현에서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상대를 위로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표현에서는 폐를 끼친 것을 알고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고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すみません” 이나 “悪い”, “ごめん” 의 말로 상대를 배려하며 인사말로써 건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드라마를 통하여 얻어진 의례성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9> 배려의 의미를 담은 의례성 인사말 비교

인사말(회수)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1)/ 너도 날 추운데 옷 든든히 입고해(1)/ 긴장하지 말고 잘 해(1)/ 경민아, 발표 잘 하더라, 잘들었어(1)/ 몸 축나지 않게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구(1)/ 열심히 하네요(1)/ 시험 잘 봐(1)/ 수고가 많으시네요(1)/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추운데서 고생했는데 배고프잖아요(1)	9	すみません・ごめんなさい・ごめんね(128) あなたはなかなかよくやったわ(1)/ あまり気にしなく方がいいわよ(1)/ お勉強は？頑張って(1)/ 元気だしなさいよ(1)/ お似合いますよ(1)/ 幸せにしてください(1)/これからもいい先生にいてね(1)/ いい部屋だね(1)/ 素敵なお店ですね(1)/ 格好いいよ、すご(1)/ ごくろさま(1)/ うまくなったんじゃない? (1)/ 頑張ります(1)/いい機会だから(1)/ よかったね、キミの計画がとってね(1)/ 大変そうだね(1)/ なおはなおでいいじゃない? (1)/ またチャンスあるよ(1)/ 何かこまったことがあったら言ってください(1)/ アタのせいじゃないから(1)/ できる(1)	136

### 2.1.3. 아침

흔히 「아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달콤한 말, 교묘하게 억지로 꾸민 말 등으로 기억해 내기가 쉬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로 분석하여 본다.

아침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추, 또는 그렇게 하는 짓”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sup>8)</sup>, 상대의 욕구와 기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언행이라는 점에서 의례성 언행과 유사성을 가진다.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기 좋게 꾸미는 언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심에서 우러나온 동기라는 것에서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와 잘 지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있어, 이기적인 의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를 통하여 얻어진 한국과 일본의 아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례성 인사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表10> 아침의 성격을 띤 의례성 인사말 비교

한 국		일 본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인사말 표현	출현 회수
그때는 그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1)/ 니가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이쁘구나(1)/ 김 치 맛있네 이거 누가 담았냐?(1)/ 나중에 열배 스무배로 갚아드린다니까요(1)/ 너 콩나물 무치는 솜씨가 나날이 발전해(1)/ 축하해 너 이번에 될 거 같더라(1)/ 너는 똑똑 하구 착하구 이뻐.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들 중에서 제일 이뻐(1)	7	-	-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거나 아침을 듣거나 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처세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를 보아 의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인사말로써 「아침」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상대의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 2.2. 동조적 표현

동조성을 띠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동조<sup>9)</sup>적인 성격을 유발시켜 제시한 어떤 의사에

8) 남광우 외 2인(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1056 남의 1마음에 들게 하려고 비위를 맞추며 간사히 알랑거리려는 것.

9) 남광우 외 2인(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441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킴. 보조를 맞춤.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건네는 말이다. 이에 응대하는 대답으로 상대는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로 대꾸를 한다. 이러한 인사말로써 상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동기를 함유하고 있는 의례적인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조를 얻기 위한 인사말의 형태는 주로 의문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대답의 형태를 인사말 속에 함축시켜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의 동조를 얻는 표현은 양국이 크게 차이는 없으나, 앞에 제시한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먼저 인식하고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추측 가능한 언행의 표현이었다.

양국의 드라마를 통하여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은모 : 그래. 공부는 잘 되고?

경민 : 예... 뭐...

정은모 : 더워서 힘들지? 고시공부가 어디 쉬운 공부래야 말이지. (『옥탑방고양이』 8회)

(1)은 주로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표현이며 상대방이 힘들다는 것을 격려해줌과 동시에 날씨의 상황에 따른 인사말을 함께 함으로써 상대의 주변 환경 상태를 배려하여 건네는 형태이다. 이렇게 상대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인사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샐러리맨에게는 “요즘 일 잘 되세요?”, 주부에게는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 “여행은 즐거웠어요?” 등과 같은 의문형태의 말이다. 이러한 인사말은 건넨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의 동조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말로써, 의례적인 형태이지만 동조성이 강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다.

(2) とうじ : ちとせさんのお弁当どう? - 치토세씨의 도시락 어땠어?

なお : 美味しかったよ。 - 맛있었어.

(『元カレ』 5회)

일본어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자신이 기대한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형태의 표현을 볼 수 있었다. 응답하는 상대 또한 상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 3. 양방향성 의례성 인사말

의례성 인사말의 세 번째의 형태는 상호작용하는 양자가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즉 의례적인 말에 의례적인 말로 대꾸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욕구는 억제하거나 배제하고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행의 형식을 빌려 보일 때 상대가 이를 예의성을 띤 의례적인 언행으로 감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례적 언행을 하고, 동시에 상대가 이를 의례성을 띤 언행으로 감지해서 똑같은 형태로 대응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의례적 언행을 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유출시키며, 또 상대는 이를 감지하고 동시에 상대도 똑같은 형태로 의례적 행동을 전자에게 되돌려 주는 의례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형태가 첫 번째의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과 두 번째의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 형태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앞에서의 의례성 인사말은 언행의 의례적 성격을 감추는 형태의 언행이 주를 이루나, 세 번째는 의례성을 유출시키는 것이 의례적 행동의 본래 의도에 부합되며, 반어<sup>10)</sup>적인 언행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고마워서 눈물 나겠다”라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반어적 표현이 의례적 승인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양국의 이러한 표현은 모두 「배려」의 사고방식의 전체 아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모두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칭찬이나 감격의 말에 꼭 답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비슷하게 쓰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는 형태가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는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칭찬 등의 말에는 인정의 뜻인 “다음에 밥을 산다”는 말로 답례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한일 모두 기본적인 에티켓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태도는 의례적인 인사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에서 빈도수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인사말의 형태에 있어서 같은 상황일지라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양국민의 사회적 습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양국의 양방향성 의례성 인사말의 예문을 살펴보겠다.

(3) 혜련모 : 저녁이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신경 쓴다고 썼는데...

동준 : 맛있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10) 남광우 외 2인(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655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떤 말을 실제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 ‘살갓이 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살갓이 몹시 흰데’라고 비꼬아 말하거나 ‘울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왜 안우니?’라고 부정하여 반문하는 투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

헤련부 : 중중 와서 저녁도 먹고 가고 그래.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솜씨 하나는  
괜찮다구. (『옥탑방고양이』 4회)

(3)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상대방과 그다지 가까운 관계가 아닐 때에 예의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4) ふじえだ : よかったね。キミの計画がとってね。 - 잘 됐네..너의 계획서가 뽐혀서.  
まこと: 藤枝さんがおしてくれましたからです。 - 후지에다 씨가 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元カレ』 3회)

위의 표현들은 의례성을 갖춘 언행을 보여주고, 또 그 예의에 대한 응답을 해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심을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이다.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건넨 말이라는 것을 알고, 표면상의 언어적 의미와는 다르게 자신을 낮추어 겸손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마치며

이상으로 한일의 의례적인 인사말의 사용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그 표현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국의 드라마를 자료로 하여 표현 형태와 양국민의 사회적 성격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전체 드라마에 출현된 회수를 중심으로 양국의 인사말의 빈도수를 <表11>과 <表12>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한일 모두 단순히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총 508개의 표현 중에서 68.7%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총 750개의 표현 중에서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대를 배려한 의례성 인사말의 기능은,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약 20%정도로 사용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국민적 특성을 가진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양방향성 의례성의 기능은 양국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모두 겸손의 자세를 취하며, 의례적인 표현에 대하여 다시 의례적인 표현으로 대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상대방에 대해 예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두 나라가 모두 「예의」를

중시하고 있는 국가로써 예의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表11> 한일 드라마 속의 의례성 인사말 빈도수

회수(%)

국가 \ 인사말기능	전형적 의례성	상대배려 의례성	양방향성 의례성	합 계
한 국	349 (68.7)	121 (23.8)	38 (7.5)	508 (100.0)
일 본	396 (52.8)	315 (42.0)	39 (5.2)	750 (100.0)

의례성 인사말을 하는 양국의 남녀별 빈도수를 <表12>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연령별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남녀비율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양방향성 의례성 인사말은 남녀 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양자간에 주고받는 말이므로 제외 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남녀가 한국의 남녀보다 의례적인 인사말의 사용이 조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은 남자가, 일본은 여자의 경우가 많았고, 동성보다는 이성간의 사용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형적인 의례성 인사말은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반대로 일본은 여자가 남자에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배려 의례성 인사말은 한국과 일본 모두 남자가 여자에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表12> 의례성 인사말의 남녀 빈도수 비교·분석

회수(%)

	男	女	인사말기능	男 → 男	男 → 女	女 → 女	女 → 男
한 국	256(54.5)	214(45.5)	전형적	48(13.7)	148(42.4)	41(11.7)	112(32.2)
			상대배려	9(7.4)	52(43.0)	23(19.0)	37(30.6)
일 본	380(53.4)	331(46.6)	전형적	101(25.5)	87(22.0)	33(8.3)	175(44.2)
			상대배려	62(19.7)	128(40.6)	28(8.9)	97(30.8)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인사말을 표현하는 종류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다양하였다. 비슷한 장면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인사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었지만,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는 정형적인 인사말 표현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정해진 문구를 쓰기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인사는 사회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의례성 인사말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의례성 인사말 표현만 조사한 것에 아쉬움이 남으며, 한일 양국민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연령별과 친소도에 관한 연구, 더 나아가 여러 다른 나라와의 대조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고문헌】

김용운(2001) 『문화로 배우는 이야기 日本語』 디자인 하우스

김광태·김준숙(2006) 「한국드라마에 대한 일본대학생의 이미지 양상(2) -남녀별에 따른 비교분석-」 『일본언어문화』 제8집 pp.383-408

박영순(2003) 『한·일양국인의 인사행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영철(1995) 「日本の社會言語學 -言語意識을 中心으로 하여-」 『일어일문학연구』 제26권 pp.201-228

최상진·유승엽(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369-385

홍민표(2000)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사행동에 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37권 pp.305-321

甲斐陸郎(1985) 「日本語のあいさつ言葉の順序性」 『日本語学』 4(8) 明治書院 pp.23-30

大坊郁夫(1999) 「挨拶行動と非言語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 『国文学』 44(6) 学灯社 pp.28-33

真田信治(1985) 「あいさつ言葉と方言 -場域差と地面差-」 『日本語学』 4(8) 明治書院 pp.43-52

沖 久雄(1985) 「あいさつ言語行動分析の観点」 『日本語学』 4(8) 明治書院 pp.31-42

氏家洋子(1999) 「日本社会の出会い・別れの挨拶行動」 『国文学』 44(6) 学灯社 pp.72-77

米川明彦(1990) 「大学生のことば -あいさつ語を中心に-」 『日本語学』 9(4) 明治書院 pp.66-74

比嘉正範(1981) 「あいさつの言語学」 『言語』 10(4) 大修館書店 pp.4-9

\_\_\_\_\_ (1985) 「あいさつとあいさつ言葉」 『日本語学』 4(8) 明治書院 pp.15-22

- 韓国드라마 -

- ① 겨울 연가 - 2002
- ② 옥탑방 고양이 - 2003
- ③ 풀 하우스 - 2004

- 日本드라마 -

- ① やまとなでしこ (요조숙녀) - 2001
- ② 恋いかしたいx3 (사랑이 하고 싶어x3) - 2001
- ③ GOOD LUCK! (굿럭!) - 2003
- ④ 元カレ (옛 남자친구) - 2003
- ⑤ 野アタをプロデュース(노부타를 프로듀스) - 2006

## 要 旨

本研究では、両国のあいさつ言葉の機能的な相違を知るため、韓国と日本のドラマを資料として、特に、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の機能の特徴について調査と分析を行うものである。

まず、韓日のドラマを通じて現れる「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を、次の三つに大きく分類する。「定型の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相手に気を配った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両方向性の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の三種に分けて分析を進める。

「定型の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まず、最初に、食事時間に会った時、食事の有無に関連するあいさつ言葉である。そして二番目には、出会いと別れの場面のあいさつ言葉で、状況的な言行のスク립トに従って、次の4種の場面に分類した。①久しぶりに会った時 ②偶然に出会ったとき ③別れる時のあいさつ言葉 ④外出時と帰宅時のあいさつ言葉を取り扱う。三番目には、約束した出合いの場面で、待っている相手に対するあいさつ言葉である。

「相手に気を配った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は、大きく2種類に分類する。まず、心情的な表現として、相手を心配する気持ちの表れたあいさつ言葉を中心にして調査を行った。これを具体的に、「心配」、「思いやり」、「お世辞」のあいさつ言葉の機能として分類した。次に、同調的な表現としては、相手の意思決定に対して同調的な反応を見せるもので、肯定的なあいさつ言葉として分析する。

最後に、「両方向性の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では、韓国および日本の各々でみられる独特な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について調べてみた。

以上のような分類に基づき、両国のドラマに現れる「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の表現と特徴について分析と考察を進める。また、「儀礼的なあいさつ言葉」の全体の頻度数についても分析し、どのような傾向があ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

キーワード：儀礼的, あいさつ, あいさつ言葉, 定型, 両方向, ドラマ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137-042)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아파트 32-1002  
電 話 : 011-796-7090  
e-mail : [boinhime@hotmail.com](mailto:boinhime@hotmail.com)